

# ‘한국판 뉴딜’을 기회로 ‘전북대도약’ 완성

김선기 전북연구원장

정부는 지난 7월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과 구조적 대전환을 위한 새로운(New) 대책(Deal)으로 ‘한국판 뉴딜’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까지 총 160조 원을 투입해 190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정부 계획에 따라 디지털(digital)과 그린(green)이란 두 개의 축에 안전망 강화를 추가하여 세 분야에서 뉴딜이 추진될 것입니다. 디지털 뉴딜은 D(data).N(network).A(AI) 생태계 강화와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로 구성되었고, 그린 뉴딜에서는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과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혁신 생태계 구축을 실현하며, 안전망 강화에서는 고용·사회 안전망 구축과 사람투자에 관한 시책이 추진됩니다.

한국판 뉴딜에서는 지역균형이 주요 추진 전략입니다. 지역균형 뉴딜은 뉴딜을 통해 지역을 새롭고,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입니다. 금년은 이러한 정부정책에 맞춰 우리 지역에서 뉴딜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전북연구원에서는 도와 협력하여 ‘전북형 뉴딜’ 구상을 준비 중에 있으며 모든 도민이 공감하여 전북이 뉴딜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한국판 뉴딜’에 대한 전북의 대응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번 특집은 ‘디지털 뉴딜과 전북의 대응방향’과 ‘그린 뉴딜 전북의 대응’, ‘휴먼 뉴딜과 균형발전’으로 구분하여 정부의 뉴딜 정책을 정리하고, 여건 및 현황 등 전북의 준비 상황을 점검한 후, 전북의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어느 나라도 시도하지 않은 새로운 길에 도전하려 합니다. 2020년은 K-방역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한국판 뉴딜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려는 담대한 여정이 시작되는 원년입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대한민국이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전환의 터닝 포인트로 규정하였습니다.

전라북도에게 2020년은 ‘전북대도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모멘텀의 시기입니다. 그동안 전북은 체계적인 정책으로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여 내실 있는 튼튼한 경제구조를 만들고 자존의식을 고취시키는데 주력해 왔습니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위기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힘찬 발걸음으로 전북형 뉴딜을 통해 전북대도약을 실현해야 하며 그 대열에 전북연구원이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